

iii 대안가정

통권8호 (2005/겨울. 계간) <http://www.daeanhome.org>



- 2. 특집 / 영아납치사건-무엇이 문제였나?
- 4. 대안가정 일기 (11가정)
- 13. 스케치 /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다녀와서...
- 14. 상담현황 및 소식
- 15. 회비(후원) 내역 및 재정
- 16. 후원안내 및 총회공지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05. 2. 11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4

영아납치사건-무엇이 문제였나?

한연희(한국입양홍보회 회장)

2005년 1월 26일, 손녀뻘인 열두살 중국동포 소녀를 입양해 2년여 동안 140여차례나 성폭행한 70대 노인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 노인의 주민등록등본 등에는 또다른 10대 소녀 2명의 인적 사항이 올라 있어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2005년 1월 24일, 불임 여성인 김모(36)씨가 거액을 주고 영아 납치를 의뢰, 청탁받은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경기도 평택의 외딴 노상에서 아이를 안고 가던 A씨(25)로부터 생후 70일된 아이를 빼앗고 엄마를 살해하는 잔혹범죄의 진상이 드러났다. 김모씨는 유괴한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양육하다가 범죄사실이 드러나, 유괴된 아이는 8개월여 만에 친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1998년 3월 31일, 미혼모가 낳은 아기의 입양을 불법 알선한 서울 서대문구 N산부인과의원 간호조무사 이수정씨(37.여)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간호사 N씨는 N산부인과의원 부원장인 남昭子씨(55.여.수배)와 짜고 미혼모가 낳은 여아의 출생증명서를 가짜로 꾸며崔모씨에게 1백만원을 받고 넘기는 등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 않고 신생아 3명을 입양시켜 3백 40여만원을 챙겼다. 또한 남의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 껌팔이 일에 이용한李京輝씨(37.)와 N씨의 동거녀田英愛씨(38.서울 용산구 동자동)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불미스런 여러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998년 9월 18일, 아동복지법,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 입법예고를 통해 무허가 입양 알선자에 대한 처벌 벌칙을 강화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이던 것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변경하였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법적 제도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고 법적인 제도보완을 통해 유사한 사고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1. 현재 우리나라의 호적법에 의한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호적법 제15조 제2절에 의하면 출생 신고는 1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의사·조산사 기타 분만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명시되어 허위출생신고의 통로가 되고 있다. 왜냐하면 출생증명서에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을 각 1부 첨부하면 간단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호적법에 의하여 출생과 사망이 일어나면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출생신고 이전에 신생아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출생과 사망 모두를 신고하지 않으므로 영아사망률과 모성사망률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합리적인 국가 보건기획과 평가를 위해서도 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출생등록제를 도입하든지 혹은 신생아 사망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출생한 신

생아는 모두 신고가 되도록 출생신고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호적법에 의한 입양신고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 친척이 아닌 유아를 입양하는 경우 대부분 국가는 이른바 익명입양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의 대부분 국가가 완전입양제도를 도입하여 친생자로 출생 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1987년에 민법을 개정하여 특별양자제도를 도입하여, 친생자 출생신고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불완전입양제도로 공개입양신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7조에 의하면 호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데, 신고서에 성명, 본, 출생연월일, 그 부모의 성명 및 양자와의 관계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 인해 익명의 제3자가 입양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입양을 의뢰한 자나 입양부모 쌍방의 상호추적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입양기관을 통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양을 하는 입양부모들의 95%이상이 친생자출생신고에 의한 입양을 선택하고 있으며 대법원 2000. 6. 9. 99므1633, 164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양친자관계존재확인에서의 판결문에서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그 형식에 다소 잘못이 있더라도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다.

또한 정부에서 입양아동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의료급여, 장애아동 양육보조비, 교육비)은 입양신고여부로 하지 아니하고 입양기관에서 발행한 입양사실확인서를 제출함으로 입양사실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비밀을 보장받고자 하는 입양부모들의 욕구가 현실적으로 잘 반영된 예라고 본다.

하지만 입양부모들은 희망한다.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양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고 완전히 친자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현재 호주제 폐지와 더불어 친양자(완전양자)제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친양자제도가 실시되면 불완전양자제도로 인한 폐단도 줄이고 익명입양이 가능해지므로 입양사실의 비밀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양자제도를 지체 없이 실시할 것과 신분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출생신고제도를 출생과 동시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직접 등록이 되는 출생등록제도로 개선할 것을 적극 제안하는 바이다.

허술한 자녀호적입적이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얼마나 끔찍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 모두 보아왔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도 언제든지 이런 끔찍한 사건의 목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또한 지금도 제도권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적인 개인입양이 성행하고 있는 주 요인은 바로 허술한 자녀호적입적 때문이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합리적인 국가 보건기획과 평가를 하기 위한 정확한 생정통계(조사망률, 연간 특수 사망률, 모성사망률, 영아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사인별 비, 출산과 출산률, 주산기 사망률, 치명률) 자료의 확보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들의 정확한 수와 발생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을 때 거기에 걸 맞는 효과적인 실천방안의 마련이 가능하리라 본다.

또한 수많은 아동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다시는 이와 같은 끔찍한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005. 1. 19 / 민지를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국장님으로부터 민지네 집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친정으로 와서 글을 올립니다. 우리집 컴퓨터가 고장났는데 빨리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우선 민지같이 예쁘고 귀여운 아이가 오게 되어 너무나 기쁘구요. 그동안 애써주신 대안가정운동본부 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민지야!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하는구나. 우리집에 오면 이모랑 언니와 서로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가자. 이모가 너를 많이 사랑해 줄게. 아빠에게 되돌아가는 그날까지 힘내고 재미있게 살자. 그럼 안녕! 금요일 날 보자~

2005. 1. 22 /
개구쟁이 세 공주들

1월 22일 토요일 밤 7시 30분. 민지가 자고 일어나더니 지금껏 울지 않고 잘 지낸다. 하룻밤 새에 이렇게 달라지는 게 신기하다. 어젯밤에 예지랑 도이랑 신랑이랑 나랑 신나게 장난치고 놀았는데 효과를 본 것 같다. 대안가정 선생님님이 민지가 피자를 먹고 싶어 한다고 해서 밤늦게 시켜서 먹었는데 민지는 한 조각도 제대로 안 먹었다. 아침에 생일인줄 알고 케이크 사고 풍선 불고 문방구에서 인형사서 준비 끝나가는데, 대안가정 선생님님이 전화가 와서 4월이 생일이라고 했다. 민지는 우리집에 와서 생일 2번 하게 생겼다. 예지와 도이는 빨리 자기 생일이 왔으면 좋겠다고 호들갑을 떠난다. 그런데 민지 성격이 저렇게 밝은 줄은 상상도 못했다. 지금 세명이 뭉쳐서 엄마놀이 선생님놀이 미술놀이 하는데 난리가 났다. 기특하게도 처음의 서먹함과는 달리 아주 잘 놀아서 행복하다. 내겐 딸이 하나가 아니라 세명이나 있다. 제발 지금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우리집에 사는 날까지 행복하게 지내. 대안가정 선생님들, 예쁜 세자매의 사진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세자매가 사는 집에 자주 놀러오세요.

2005. 1. 28 / 사랑하는 우리 공주님

· 아빠의 귀염둥이 민지야 사랑한다. 지금은 아빠와

헤어져 지내지만 아빠와 만나는 날까지 밝은 모습으로 씩씩하게 지내라. 아빠가 많이 보고 싶을텐데 참고 지내는 민지가 참 고맙고 미안하구나! 민지가 울어서 눈이 부은 모습을 보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아프다. 울지 말고 이모님 말씀 잘 듣고 언니들과 사이 좋게 잘지내라. 민지 이모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이와 예지야 민지 사랑해 주어서 고마워...

2005. 2. 1 / 민지 어린이집 입성

어제부터 민지가 어린이집을 다닌다. 옆집 친구 정민이랑 같은 반에 넣었더니 별로 쑥스러워하는 기색 없이 교실로 들어갔다. 오후에 데리러 가니 밥도 잘 먹고 친구들과도 잘놀았다고 해서 맘이 놓였다. 민지는 아침에 눈을 뜨면 부엌으로 달려가 "밥 주세요!"

한다. 식성이 좋아서 무엇이든 다 잘먹는다. 카레도, 조개 넣고 끓인 미역국도, 뭐든지 맛있다고 한다. 먹고

한시간이 지나면 또 먹고 싶다고 한다. 민지는 얼마나 잘 웃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웃음을 주체 못

한다. 또 질문은 어찌나 많은지, 이모부가

당근을 먹고 있으면 "그거 왜먹어요?" 이

모부가 자고 있으면 "이모부 왜 자요?"

이모부가 퇴근을 안 하면 "이모부 왜 안

와요?" 언니가 안보이면 "언니 어디 갔어

요?" 눈이 온걸 보면 "왜 눈이 왔어요?" 끝이

없다. 처음 며칠간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려고 해서 설

득하느라 힘이 들었는데, 요즘은 텔레비전 틀어달라고 하지 않고 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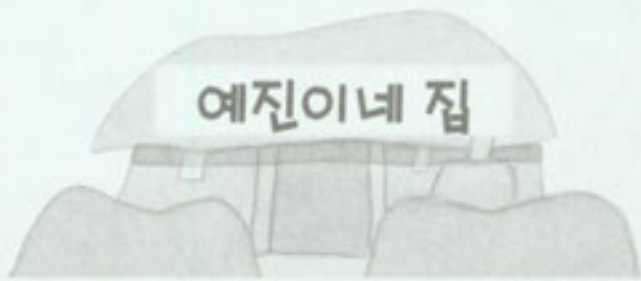
도 논다. 언니들과 블록놀이, 선생님놀이, 병원놀이, 책읽기(물론 그림만 열심히 본다)를 즐겨

하는데 민지의 웃음소리가 제일 크게 들린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외가에 인사를 시킨 날, 외할아버지 품에 30분정도나 가만히 안겨있었다. 그러더니

다음번에 갔을 때 외할아버지가 안보이자 어디 갔냐고 찾고, 외할머니가 할아버지 외출하셨는데 통화할래. 하니까, 끄덕끄덕해서 할아버지랑 핸드폰으로 통

화를 했다. 민지는 아빠품이 그리운지 이모부품에 스스로럽없이 파고들고 자고 있으면 겨드랑이를 간지르고 장난을 친다. 다행히도 곰같은 내딸은 아무리 민지가 안겨있어도 소 닭보듯 해서 꺾끄만 전쟁조차 일어나지 않는다. 민지네집 이야기 다음편을 기대해주세요~





2004. 12. 3 / 예진이가 왔어요!

우리 집에 공주님이 왔어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마음으로 준비를 해도 막상 오니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와 어떻게 사귄다 걱정 있었는데 뜻밖에 예진이가 금새 다가와서 고맙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아빠가 싸주신 옷함 속에서 예진이가 좋아하는 옷을 꺼내서 입고 교회에 갔답니다. 우리 공주님은 붉은색, 핑크색을 좋아하는답니다. 밥도 잘 먹습니다(두유도). 오늘 첫날밤을 잘 잘까요? 내일 알려 드릴게요. 자주 와주세요. 안녕!

2004. 12. 4 / 예진이 둘째 언니예요

저는 예진이 둘째언니, 정은혜라고 합니다. 저번에 미지가 온다고 했을 때는 거의 2주 동안 설레이면서 서울에서 옷도 사서 보내고,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우리가 더 좋아서 방방 뛰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되었드라구요. 그래서 많이 서운했었어요. 이번에는 글썸, 엄마가 어제 갑자기 통화중에 "내일 집에 아기 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번처럼 못오게 될까봐 조바심이 나왔나 봐요. 어쨌든 이렇게 예쁜 예진이가 우리 집에 오게 되서 너무나 기뻐요. 지금은 대학교를 다니느라 예진이를 직접 보지 못하지만, 방학동안에 집에 있으면서 예진이랑 재미난 시간을 보낼꺼예요. 벌써부터 너무나 기대되는데요? 우리 예진이 이쁘게 커가는 모습 지켜봐 주세요. 제가 많이 많이 이뻐해 줄테니까요.

2004. 12. 4 / 예진아! 반갑다!

저는 예진이의 큰언니 지혜라고 해요. 어제 예진이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하루 종일 수업이 귀에 안

들어 오더라구요. 그리고 오후3시, 수업이 마치자마자 집으로 전화를 했지요. 반갑게도 예진이가 집에 왔더라구요. 전화로 "지혜언니~" 하는데 어찌나 귀엽던지요. 빨리 기말고사를 치고 예진이를 보러 집에 가야겠어요. 예진이가 좋아할만한 이쁜 선물을 사려고 말이죠. 우리 가정에 예진이로 인해 웃음이 더 넘쳐날 것 같아요. 기대해도 되겠죠?

2004. 12. 4 / 첫날 밤

첫날 밤! 예진이와 만난 첫 밤! 아마 기억 많이 나겠죠? 낮에 너무 갑작스런 변화가 여러번 있어서 그런지 몇번 뒤척이다 잠이 들었습니다. 잠 못잔건 우리들이었다니까. 오늘 밤은 어떨까...

2004. 12. 8 / 당신과 나 사이에!

당신과 나 사이에 예진이가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 뭘 씨나라까먹는 소리냐구요?

예진이가 온 날부터 우리 집엔 부부가 별거(?) 중이랍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서 글썸 예진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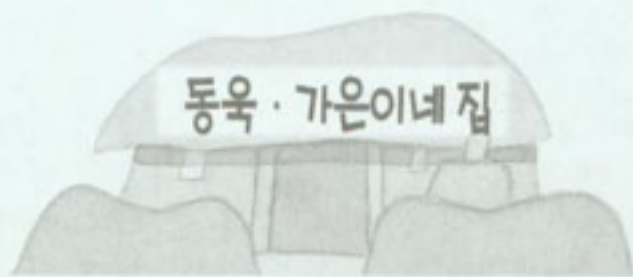
2004. 12. 23 / 따스한 겨울

오늘 뜻밖의 선물을 받고 너무 고맙습니다. 정성껏 만드신 성탄카드, 하트의 선물 상자 속에 담긴 대안가정 운동본부 선생님들의 따스한 마음들, 최고의 선물이었습시다. 바쁘신데 언제 이런 고마운 선물을 만드셨는지요. 예진이는 사탕을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사탕 먹는 일을 자제했거든요. 보자마자 너댓개를 푹딱 해치웠답니다. 하루에 먹을 양을 정하고 고개는 꼬덕였는데 글썸... 그게 쉽게 될런지요. 아무튼 행복합니다. 선생님들도 좋은 성탄되세요.

2004. 12. 29 / 저렇게 늙어도 애기 나?

외할머니 생신에 예진이와 함께 큰 이모집에 다녀왔습니다. 뜻밖에 예진이를 만난 아이들마다 이모 누구냐고 물었고, 이모 딸이라는 말에 제일 막내녀석 자기 엄마한테 가서 귀속말로 "저렇게 늙어도 애기 나? 진짜야?" ㅋㅋㅋ





2004. 9. 30 / 추석은 잘 보내셨나요?

추석연휴동안 잘 보내셨나요? 저희 가족 모두는 서울로 다녀왔습니다. 오갈 때 빼고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장시간 차안에서도 즐겁게 잘 놀고, 예고, 휴게소에서 교대로 볼일을 보는데 우리를 보는 시선이 엄청 납니다. 가은이는 인기만점! 가은이의 표정과 행동에 모두가 즐거워했어요. 한동안은 굴러다니기만 하더니 이제 다른 동작으로 웃음을 자아냅니다. 동욱이도 비교적 잘 지내고 왔어요. 고집을 부려서 혼나기도 하지만, 아무튼 어디를 가도 아이들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2004. 11. 10 / 동욱아!

동욱아! 재밌게 놀다가 와. 동욱이의 어린이집 나들이. 오늘이 나홀짜. 동욱이는 보통 새벽 5시 40분쯤 일어나. 새벽밥을 먹고 출근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빠르다. 아이 아빠가 일찍 일어나긴 하지만 거의 매일 동욱이가 먼저 일어나 자기의 위치를 알린다. 여러 가지 소리를 번갈아 가며 내서 시끄럽다고 형한테 혼나기도 한다. 이렇듯 아침에 일어나 볼일을 보고 씻고 밥 먹고 하면 8시 30분. 하지만 볼일을 못보면 더 늦어진다. 오늘도 웅가가 늦어서 어린이집에 늦게 도착했다. 동욱이도 여느 아이들처럼 떨어지기를 싫어했다. 울기도 하고 발도 구르고. 그러면서도 친구는 좋은지 선생님을 따라 교실로 들어간다. 뒷모습을 쳐다보는 내 마음이 조금은 씁쓸하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이 되고 그러면 더 밝은 모습이 되리라. 동욱이는 씨앗반이다. 선생님도 좋으시고 친구들은 6명, 제일 어린반이다. 마치고 집에 오면 4시30분 정도. 교회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우리집에서 차로 10분정도. 동욱아 화이팅!

2004. 11. 13 / 생일, 추카 추카 추카!!

생일 축하합니다. 케익은 미리 먹었다. 동욱, 큰언니 예지, 가은이의 합동 생일! 가은이의 생일선물, 꽃바구니, 내복, 외투 등등... 그중에 한벌은 동욱이꺼. 손님들 가시고 나서 이들은 콧물감기로 고생. 지금은 낮잠을 자기 위해 큰언니하고 방에 누웠다. 아이의 모습에는 거짓이 없다. 단순한 믿음, 순진한 마음,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우리집의 고집불통 동욱이가 드디어 어린이집에서 한걸 했다. 여자아이와 싸워서 때리고 물리고... 이날은 웅가도 바지에 묻혀 오고, 하여튼 정신없는 하루였다. 적응은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은 걱정이 된다. 아침마다 작은 전쟁을 치른다. 남들이 들으면 큰일난 줄 알 것이다.

2004. 12. 6 / 감사합니다

그동안 글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어려움이 닦쳤거든요. 아무튼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의 따스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잠시 아이들 문제로 고민을 했지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는 동욱이, 이제 서는 연습을 하는 가은이,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잘 자랐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05. 1. 21 / 새해 건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바쁘게 보냈습니다. 얼마전 동욱이가 어린이집에서 다른 아이에게 물려왔는데 그것이 덧나서 피부과에 다녀왔어요. 크게 걱정할 것은 없는데 자꾸 손으로 만져서 흉이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 때문에 이비인후과도 갔는데 이상이 없네요. 10명중 1명은 귀지가 물처럼 나온대요.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놀고 있을꺼예요. 동욱이는 뛰어다니면 서는 것이 잘 안돼서 많이 부딪힙니다. 울기도 많이 울고 물려오기도 하지만 물기도 잘한답니다. 다른 친구 손가락을 물어서 혼나기도 여러번. 자라면서 있는 일상적인 일들입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밝게 자랐으면 합니다. 가은이는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습니다. 얼마나 먹는 것을 잘 아는지 너무 많이 먹어 걱정입니다. 웅가해서 엉덩이 씻으러 가면 팔이 떨려요. 예전의 그 몸은 다 어디로 가고 두루뭉실해질려고 합니다. 옷을 때나 올 때나 동욱이하고 똑 같아요. 정말 많이 닮았어요.



2004. 9. 30 / 귀여운다혜!

추석에 시댁에 온 식구가 모였다. 다혜는 말끝마다 '요'자를 쓰며 재롱을 피워 웃음보따리를 선사했다. 나두요, 이리와요, 먹어요, 싫어요, 안먹어요, 좋아요 등등. 정말이지 얼마나 말을 제법같이 하는지... 고모들은 다혜가 많이 안정되고 컸다고 대견스러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도 여름에 고집피우며 울던 다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다시 입력시키시는 좋은 시간이었다. 다혜는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린 친손주들의 재롱을 대신하는 아주 귀여운 막내로서 인정된 것이다. 밥도 잘 먹고 할아버지 품에 안겨 재롱을 피우고, 잠 잘 때도 할머니랑 놀다가 같이 자곤 했다. 동서는 다혜똥의 선물까지 안겨주며 예뻐해 주었다. 당연한 것 같은 모든 일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눈물나도록 고맙고 감격스럽다. 우리 부부의 선택에 힘을 실어주고 용기를 주고 협조해 주는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 언니, 아가씨, 삼촌, 동서... 정말 고마워요! 모두들 사랑해요!

2004. 10. 2 / 생쟁이들!

셋째딸은 요즘 들어 다혜를 많이 샘한다. 다혜는 처음부터 막내언니에 대해 약간의 경계를 가졌었고 샘도 있었다. 토닥토닥 싸우는 것도 역시 둘의 일이다. 막내 언니의 손에 뭔가 있으면 그걸 억지로라도 뺏으려 한다. 그러면 세째는 나에게 와서 다혜를 고자질한다. 무심한 듯 넘어가보기도 하지만 신경전이 펼쳐진다. 어제도 세째가 나의 품에 안겨서 내 손에 뽀뽀를 하니 옆에서 놀던 다혜가 얼른 와서 언니를 밀어내고 내게 안겨 언니 보다 더 많이 뽀뽀를 해댄다. 내참, 행복에 겹다고 해야 할지... 그러다가도 놀때 또 잘 논다. 알다가도 모를 아이들. 오늘은 또 어



편 일로 서로를 샘할까?

2004. 11. 20 / 한쪽밖에 없는 눈썹... 흑흑

다혜의 앞머리를 눈이 보이도록 자르고 나니 지저분한 윗눈썹이 포착되었다. 눈썹칼을 가지고 와서 다혜더러 누우라고 하니 다혜도 미모에 관심이 많은지라 시키는대로 발라당 눕는다. 어데보자~ 살짝살짝, 조심조심... 허걱! 움직이지 말란 말야! 야! 야! 이미 사건이 벌어졌으니... 흑흑흑 다혜가 이마를 위로 움직이는 바람에 그만 눈썹이 밀려버렸다. 어데보자~ 도저히 어찌 할 수가 없구나. 우짜노, 어데보자. 그래도 예쁘기만 하군!

2004. 12. 7 /

다혜의 새로운 취미

며칠전 아빠가 코피가 나서 휴지로 코를 막았다. 오빠도 장난으로 그렇게 했다. 이것을 본 다혜는 그날부터 휴지만 보면 찢어서 코에 넣는다. 그리고는 아파서 울고불고 난리다. 그런데 다음날이면 또 그렇게 한다. 한두번도 아니고 며칠을 계속 코 속에 휴지를 말아 넣는다.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까? 아이들 앞에서는 작은 일도 함부로 해서는 안되는 것을 다시 복습한다.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세요.

2005. 1. 15 / 편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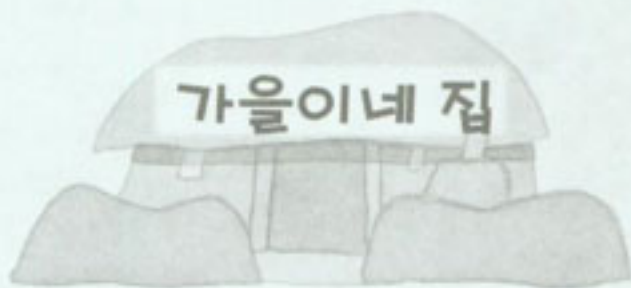
언니오빠가 방학이라서 집에 있으니 다혜가 참 좋아한다. 아이들이 다혜를 잘 데리고 노니 볼일도 보고 낮잠도 자고 책도 읽고 지상낙원이 따로 없다. 다혜는 아직 침대에서 엄마랑 자는데, 아침에 자기들 방에서 자고 일어난 언니 오빠가 내 침대로 올라오면 쫓아내기가 바쁘다. 이상한 것은 오빠랑 막내언니랑 아빠는 다 쫓아내면서도 큰언니는 오히려 "일루와, 일루와"하며 손바닥까지 까딱까딱한다. 헐! 다혜야 그렇게 편애하면 신상에 안 좋단다. 아는지 모르는지 그래도 큰언니만 졸졸졸... 큰언니는 다혜를 안아주고 업어주고 어쩔 그리도 죽이 맞는지.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메우니 추운 칼바람이 맥을 못춘다. 눈이 언제나 오려나? 눈오는 날에 가까운 소백눈썰매장에 아이들과 가기로 했는데...

2004. 10. 1 / 추석-부산가는 차 안에서

대현이랑 누나랑 엄마 큰아빠가 추석에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갈때는 4시간, 올때는 무려 11시간이나 걸려서 다녀왔습니다. 대현이는 때때로 빨리 집에 가자고 졸랐지만 휴게소에서 맛있는 음식도 사먹고 친구(부산) 만나는 재미도 있어서 즐거워했습니다. 또 며칠 전에 분양 받은 토끼들도 이번에 함께 갔는데, 대현이는 무척 토끼를 좋아했습니다.

2004. 11. 7 / 인라인 장에서

기차 여행을 다녀 온 후 강변에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기차여행을 다녀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또래 아이들하고 노는데, 너무 명랑하고 개구장이였습니다. 집안에서 본 대현이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이 집에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맘이 참 흐뭇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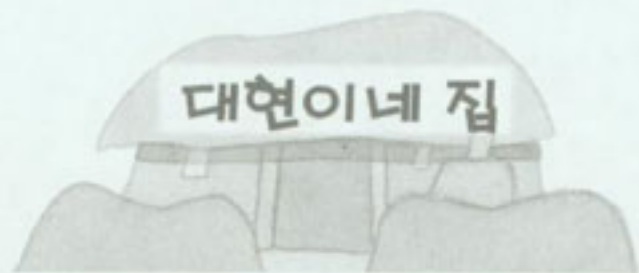


2004. 12. 10 / 개구쟁이

제법 키가 컸다고 손에 잡히는 것은 죄다 꼬집어 내리는 일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그래서 바닥에 있는 물건들은 자꾸 높이 쌓입니다. 여기 저기 기어다니며 구석구석 뒤지면서 호기심이 발동하여 입에 넣기도 하고, 종이를 물어뜯어 우물우물 씹기도 하고, 정말 정신이 없네요. 얼마 전에는 가을이가 아빠와 함께 외출을 했습니다. 요사이 자주 볼 기회가 없었기에 걱정이 되어 올면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저녁 무렵에 서야 왔답니다. 생각보다는 울지 않고 잘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핏줄은 어쩔 수 없는가 보네요. 자주 보지 않는 사람한테는 안가고 울기만 하는데, 지금은 아빠 엄마 소리도 제법 또렷하게 잘 한답니다. 소파를 잡고 옆으로 걸기도 하고, 병원에서 매월 먹는 약도 점차 줄고, 순조롭게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가 음악소리만 나오면 몸을 흔들면서 재롱을 피워 식구들에게 웃음을 준답니다.

2005. 1. 5 / 아빠와 같이~

새해에 시골로 가느라 가을이는 아빠와 같이 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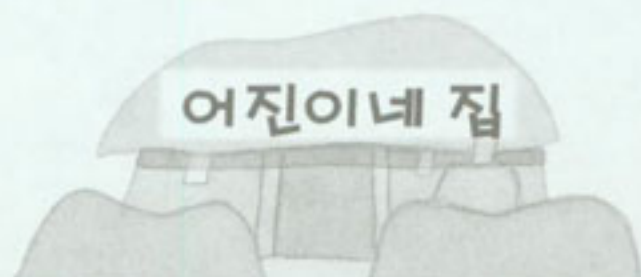
2004. 12. 8 / 시골 집 나들이

참 오랜 만에 시골 고향 집에 다녀왔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이 있어서 통영을 다녀왔습니다. 비록 먼 길이었지만 오랜만에 가는 고향이라서 마음이 많이 설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우리 생각이요 먼 여행 때문에 대현이는 언제 도착하느냐고 확인을 거듭하면서 차안을 답답해 했지요. 그런데 시골에 도착해서는 고모들, 사촌들, 할머니께서 주시는 용돈과 사랑으로 금방 다 잊어버리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밤을 보내게 되었다. 시골이 너무 추워서 가을이를 데리고 가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셋째 고모와 아빠와 같이 지냈는데, 가을이는 아빠를 자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낯을 가리지 않았다. 어제는 카톨릭병원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 의사선생님께서 별탈없이 커가는 가을이의 모습을 보시고 흐뭇해 하셨다. 요즘에는 밥, 과일, 과자 등 주는대로 잘 받아먹는다. 언니, 오빠와 같이 장난도 치고 고모부께서 출퇴근하실 때는 손을 흔들며 반겨 집안 분위기를 환하게 만든다. 올해에도 별탈없이 건강하게 잘 자라주길 바란다.

2005. 1. 10 / 아빠만 외쳐 대는 가을이

아무리 엄마라고 불러보라고 해도 가을이는 목소리를 높여 아빠, 아빠만 소리쳐 부른다. 전에는 엄마소리만 하더니 요사이는 자기가 아쉬울 때만 엄마라고 부르면서 울곤 한다. 내가 나가기 위해 걸옷을 들면 따라 나갈려고 반응을 보일 때는 뭔가 아는 것 같다. 요즘에는 추운 날씨 때문에 간단한 불일을 볼 때 언니, 오빠에게 가을이를 맡기곤 한다. 밥을 먹어서 그런지 목소리도 커지고, 기어다니거나 소파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힘이 넘쳐 보인다. 고모부가 서운해 하는 것은 잘 놀다가 아빠가 와서 오라고 하면 뒤도 안돌아보고 아빠한테 안기는 모습이 제일 알밋다고 한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아빠라고 소리치면서 노는 모습을 보니 많이 안되 보이고 빨리 가정을 찾아서 아빠 품에서 커갔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든다.



2004. 10. 22 / 어진이는 완벽주의자

우리 어진이는 무엇이든 반듯한 걸 좋아하는 것 같다. 목욕탕 앞에 깔아 놓은 매트가 비뚤어져 있으면 똑바로 놓으려 하고, 접혀져 있으면 똑바로 펴 놓기도 한다. 우리 식구들은 모두들 어질러 놓고 사는 편이고 비뚤어졌거나 바로 돼있거나 별로 개의치 않는데, 제일 작은놈이 그러고 다니니 얼마나 신통한지. 밤이면 이부자리를 깔아 주는 데 바닥이 찰까봐 요를 두어개 깔고 위에 이불을 까는데 조금만 비뚤어지면 야단이 난다. 베개도 나란히, 제가 좋아하는 쿠션도 나란히, 제 옆에서 자는 아빠 베개도 똑바로, 거기다가 또 집을 만든다고 집에 있는 베개를 모조리 가져다가 이부자리 가장자리에 나란히 사각형을 만들어 놓는다. 조금이라도 비뚤어지면 안되고 베개 하나라도 빠지면 안된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는 잘 때는 엄마 침대 위에 올라와서 잠이 든다. 잠이 들고 난후 베개를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것도 큰일이다. 누나방에도 갔다 놓아야지, 형아방에도 갔다 놓아야지, 남은것 이불장에 넣어 놓아야지... 어진이는 아무래도 이다음 무엇이든 야무지게 일을 할 것 같다. 그렇지만 이놈아, 너무 완벽한 성격은 스스로 너무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단다.

2004. 11. 16 / 너 죽을래?

어진이의 말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요즘은 우리집 전화 교환수이다. 어디서 전화만 오면 전화를 받겠다고 한다. "여보데요? 네 네 엄마 아꼬 두께요~" 테레비 연속극을 좋아해서 엄마 보는 프로를 저도 즐겨 본다. 예전에 애정의 조건이 방영될 때 테레비를 틀으면 '엄마 울고'를 보잔다. 채시라 우는 모습을 '엄마 울고'란다. 놀이방에서도 이젠 아이들이랑 말싸움도 곧

잘 한단다. 아이들이랑 싸우면서 배운 말 한 가지. 엄마가 제 맘에 안들면 "너 죽을래?" 아니 이놈이... 아빠 어디 가셨니? 물으면, 케사(회사), 누나 어디 갔어? 학교, 형아 어디 갔어? 동국(중국), 더 귀여운 건 다른 사람에겐 존댓말을 안쓰면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꼭 존대말을 쓰는 것. 할아버지 진지 잡수시라고 말씀드려라 하면 "하래비 밥 머어요" 우리 어진이 귀여워 죽겠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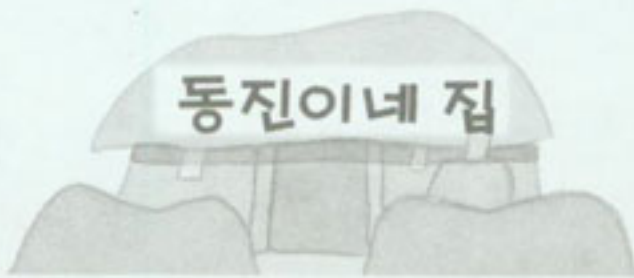
2004. 11. 28 / 엄마가 좋아서 좋아...

떼를 쓸때도 있기는 하지만 어진이는 요즘 말을 아주 예쁘게 한다. 저녁을 먹은 후 대개는 내방에서 함께 불럭놀이를 하던지 퍼즐을 맞추던지 책을 읽던지 아니면 엄마가 보는 연속극을 함께 본다. 요즘 나오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라는 연속극이 맨처음엔 재미있는 것 같아 한번 보았는데 그 다음엔 내용이 너무 황당해서 안보려고 돌렸더니 그것을 보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재미없으니까 보지 말자고 했더니 우리 어진이 "다혜언니가 너무 예뻐"라고 한다. 거기에 나오는 여주인공을 다혜언니라고 칭한거다. 아이고 눈은 있어가지고... 요즘은 엄마를 끌어안으며 종종 하는 말 "엄마가 좋아서 좋아" 아니 어찌 고런 예쁜말을. 아이구 이쁜 내 새끼. 그래 엄마도 어진이 좋아서 좋아. 정말이고 말고.

2005. 1. 7 /

아빠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진이가 며칠 전부터 "아빠 사랑해요 크추마쉘"하고 외치고 다닌다. 정작에 크리스마스 땐 아무런 소리가 없더니 크리스마스가 며칠 지난 어느 날부터 아빠 사랑해요 크리스마스를 하루에도 수없이 외친다. 아마 놀이방에서 배운 듯 하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어떤 씨엠송에다 아기 곰 세마리를 섞어서 부른다. 아빠가 워낙에 감정 표현을 안하는 편인데 어진이가 그러고 다니는게 귀여운지 틈만 나면 어진이더러 "아빠 사랑해요 크리스마스"를 하라고 한다. 엄마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가르쳐 주었더니 "아빠 사랑해요 메리 크추마쉘" 어진이 덕분에 새해에도 우리집은 크리스마스가 끝나지 않았다. 아빠의 화답송 "어진이 사랑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2004. 10. 29 / 성과 라면 이야기

역시 애들은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걸 좋아하나 보다. 우리집은 이모부가 분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까닭에 간혹 라면이라도 먹는 날에는 애들이 난리가 난다. 문제는 거기서부터. 지난 일요일 점심때, 라면 먹자구 엄청 조르기에 컵라면을 두개 사왔다. 물을 끓여 컵에 붓고 기다리는데 이모부가 기어코 나선다. 어차피 먹일거면 냄비에 끓여 주지 왜 컵 채로 주느냐. 환경호르몬이 어찌구 하면서 나중에 애기 낳을 때도 영향이 있다는 등. 주경이가 "동진이는 애기 안 낳으니 괜찮다" 하니까 동진이가 큰소리로 "나는 씨를 주잖아!" 그 한마디에 환경 이야기는 끝나버렸다. 며칠 전에는 주경이가 라면을 끓여서 같이 먹었다는데, 동진에게 맛있냐고 물으니 눈물이 날 정도로 맛있다고 했다. 이모부 몰래 한번씩 끓여줘야 할러나 고민 좀 해야겠다.

2004. 11. 28 /
아빠! 힘내세요.

가까운 곳에 다닐 때는 일부러 동진을 데리고 다닌다. 서로가 심심하지 않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어제는 슈퍼에 갔는데 동진이란 잘 노는 형아의 엄마가 "아들 아니에요? 이모라고 하는것 같네요" 묻길래 "아들같은 조카예요" 조심스럽게 말했다. 돌아오면서 동진에게 누군가 아들이냐 조카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했더니 웃으면서 "아들이라고 해요" 한다. 그리고 느닷없이 한마디를 더하고는 씨~익 웃는다. "그러면 누나야가 조카네" 며칠 전에는 돌이서 차를 타고 마트에 가는데 뒤에 아주 멋진 차가 따라 오길래 "동진도 나중에 커서 멋진 차 타고 다니면 이모도 태워줘!" 했는데, 서운하게도 안된다고 딱 자른다. 왜 안되냐고 물었더니 "그때는 이모야가 어디 사는지도 모를텐데" 무슨 뜻인가 해서 "그때는 누구랑 사는데?" 했더니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당연히 아빠랑 살지" 한다. 평소에 말은 안해도 동진이는 아빠를 기다리고 그리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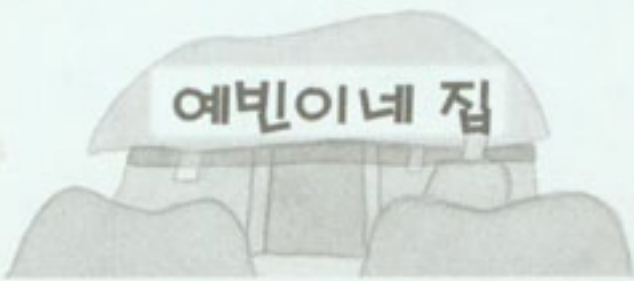
하는 듯하다. 요즘 무슨 회사 광고에 나오는 '아빠 힘내세요'란 아이들의 노래를 어린이집에서 배우는 모양이다. 집에서 한번씩 부르는데 아주 큰 목소리로 정성을 다해서 부른다. 얼굴은 빨개지고 목에는 핏발이 서도 끝까지 부르는데 짠하게 가슴이 아려와서 가만히 다가가 안아준다. 지난호 소식지의 김선미님의 글이 너무나 가슴에 와 닿았다. 위탁아동과 위탁부모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의 의미는 겪어보지 않고는 실감하기가 힘이 들 듯 하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도 동진이와의 이별을 기다린다. 얼마나 오랫동안 아파해야 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아이의 앞날이 더 소중한니까. 동진이 아버지! 힘내세요. 가장 소중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5. 1. 2 / 아빠와의 만남

지난해 4월이었나보다. 동진이가 우리집에 와서 처음으로 아빠를 만난 것이. 아빠를 만나고 와서 심적인 변화가 있어서 한동안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괜찮겠지 기대를 하면서 거의 8개월만인 2004년의 마지막 날 본부 사무실로 동진을 데려갔다. 약간은 불안해했지만 아빠를 만난다는 기대에 부풀어있는 동진이와 작별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인데다 동진의 빈자리까지 겹쳐서 딸아이가 집안이 너무 조용하여 이상하다며 침묵을 껴다. 그렇게 짧지만 긴 이별을 끝내고 다음날 국장님과 나타난 동진이! 가족의 우려를 말끔히 씻는 밝은 표정과 변함없는 호탕함에 마음이 놓였다. 지난번 만남과 달리 이번에는 후유증이 전혀 없는 듯 하다. 자신의

상황과 대안가정에 대한 인식을 조금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에 너무 일찍 철이 드는건 아닌가 걱정도 된다. 형편이 된다면 아빠와의 만남도 좀더 자주 가졌으면 싶다. 지금 일기를 쓰는 중에 동진이가 이모부에게 떼를 쓰고 있다. 눈이 왜 이렇게 안내리냐구. 아빠 만나러 가는 날 세상이 하얗게 눈이 내렸는데, 눈밭에서 누나랑 놀아야 된다는 걸 데리고 가면서 아빠 만나고 오면 눈이 또 올거니 그때 놀면 된다고 했는데 맘대로 눈을 내리게 할 수도 없구 이모부가 땀 좀 빼게 생겼다.

예빈이네 집



2004. 10. 9 / 예빈이의 성 교육

엄마 : 예빈이는 여자야? 남자야?

예빈 : 남자야!

엄마 : 예빈이는 여자야! 여자!

예빈 : 예빈이는 여자야?

엄마 : 응! 예빈이 여자야 남자야?

예빈 : 남자!

엄마 : 예빈아! 예빈이는 여자야.

왜냐하면 남자는 고추가 있고, 여자는 고추가 없거든. 예빈이는 고추 없지? 그러니까 너는 여자야 알겠지?

예빈 : 예빈이도 고추 있어.

엄마 : 어디 있어? 보자!

예빈 : 냉장고에...

(내가 잘못했다. ㅎㅎㅎ)

2004. 12. 4 /

예빈아! 내줌 살리도

예빈이의 정신과 약을 꺾끔이라도 줄이는 날부터 언제나 우리집에는 또다시 전쟁이 시작된다. 식사준비를 하면 울고, (밥 한끼 조용히 먹을 때가 없으니...) 청소하려고 청소기 꺼내오는걸 보고 울고, 소꿉놀이 하다가 갑자기 아빠 보고싶다며 울고... 예빈이가 줄인 약에 적응할때까지는 두 세달 걸리는데 그때까지는 모든 행동에 내가 습부터 쿵닥쿵닥... 밥을 차리기 전에 예빈이를 붙잡고, 예빈아! 지금 엄마가 밥을 차릴려고 하는데 예빈이가 울지말고 식탁에가서 예쁘게 앉아 조용히 밥을 먹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수 있겠어? 네! 그럼, 엄마 지금부터 밥 차린다. 울지 않고 예쁘게 기다릴수 있지? 네! 부랴부랴 수저챙기고, 반찬챙기며(약발이 받을때는 예빈이가 스스로 도와주던일...) 뒤가 이상해서 보면 식탁옆에와서는 또 울고 섰다. 예빈이! 밥 먹기 싫으면 안먹어도 되니까 울지 말고 저리 가서 놀아! 아니예요. 먹을꺼예요! 밥 한그릇 푹닥 해치우는것이



꼬옥 밥 먹을때면 한바탕 전쟁을 치루니...휴!~ 언제 끝이 나려나... 다음번엔 내 약도 받아와야 할것 같다.

2005. 1. 15 / 예빈이의 수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엄마를 보고 예빈이가 묻는다. 엄마 뭐해요? 돈벌어! 돈벌어? 응! 돈 많이 벌어서 예빈이 딸기우유 많이 사줄게. 네 엄마! 엄마 고마워요. 바나나 우유랑 요구르트도 많이 사주세요. 응!

엄마 예뻐서 널 어린이집에 가서 사탕 갔다 줘야지.

아빠와 목욕탕에서

아빠! 예빈이 머리 깨끗이 빨

아주세요. 그러면 예빈이가

아빠 이쁘다 해줄게~ 아

빠! 아빠 이름은 뭐야?

(처음으로 이름을 묻는

말에 순간 당황한 아

빠) 아빠이름? 아빠

이름은 아빠지. 엄

마 이름은? 엄마

이름은 엄마구. 으

응! 알았다. 그 다

음부터 엄마아빠

이름은 엄마! 아

빠!가 되버렸다. 이

를 어째...

2005. 2. 2 /

오빠, 어디갔어?

예빈 : 엄마! 오빠 어디 갔어?

엄마 : 오빠 이제 군인아저씨

됐어. 충성! 하러 갔다구.

예빈 : 충성하러 갔어?(이게 무슨 소린가? 라는 표정으로 한참 쳐다보더니) 아빠! 일어나 빨리.

아빠 : 왜?

예빈 : 오빠 데릴러 가자. 오빠 데리구 와야 돼. 빨리 일어나 하며 아빠를 마구 혼든다.

며칠후, 텔레비전에서 군인들이 나오니, "엄마! 오빠 충성! 하러갔어?" 응!, 많이 자야 올수 있어.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저런 군인 아저씨 됐어? 응! "와!~ 우리 오빠 멋지다. 아이구~ 오빠 멋지네" 하며 난리다. 아이구~ 정말 못말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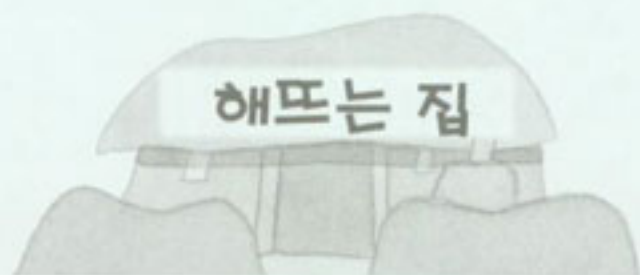
2004. 11. 23 / 멋부리다 공공 언 유현이

어제부터 유현이는 학원에서 10시까지 수업을 하고 온다. 곧 시험이 있기 때문에 학원에서 보강수업을 해준다. 처음에 학원에서 10시까지 수업한다고 할 땐 펄쩍 뛰었는데 이젠 시험때면 으레 그러려니 하고 있다. 유현이도 제 스스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라 학원에 가길 원한다. 그런데 어제 10시가 넘어 학원에서 돌아온 유현이가 문을 열어주자 훌 오그라붙어서 발을 동동거리며 오돌오돌 떨고 있다. 가만히 보니 얇은 청바지와 청자켓을 입고 있다. 안에는 블라우스와 조끼를 입었고, "야! 너 감기걸리려고 걱정했어? 옷이 없나 왜 얇은 옷을 입고 벌벌 떨고 있어." 현관에서 냅다 소리를 질러대다 기가 폭 죽어있는 유현이를 보자 또 안된 마음이 들어 남편에게 화살이 갔다. "아니, 유현이 학원갈 때 안 봤어요?" 어제 한국입양홍보회 대구경북 대표인 건이 아빠랑 같이 CBS 생방송에 출연하느라 유현이 학원 가는 걸 챙기지 못했었다. 내가 봤더라면 당장 옷 갈아입고 가게 했을텐데, 남자들 눈엔 그런 것까진 잘 들어오지 않나보다. 아침에 보니 다행히 감기에 걸리진 않은 것 같다. 유현이 안입는 코트들 내가 입고 다닐까부다. 하루만 내가 입으면 안뻗기기 위해서라도 잘 챙겨입을텐데... 근데 왜 이 추운 날씨에 초가을 패션이람...



2004. 9. 29 / 깨우지 마세요

"얘들아! 내일 아침은 10시까지 잔다. 알았지?" 아이들에게 부탁 반 협박(?) 반으로 일찌감치 잠을 재웠다. 일상보다 휴일은 더 피곤한 날. 실컷 자겠다는 일념으로 휴대폰도 끄고, 방문도 잠그고... 날도 밝지 않았는데 부스럭, 쿵! 도대체 무슨 소리가 새벽잠을 깨우는가? 눈을 비비며 창 밖을 보니 아니 이것이 웬일인가? 늘 한 낮이 가까워져야 오는 청소차가 아침부터 그것도 휴일날 출동한 것이다. 다시 잠을 설치는데 이번에 웬 괴성이 들려온다. 그것도 모노가 아니고 스테레오로. "아~ 시원하다! 아~ 시원하다!" 오복이와 오민이가 새벽부터 화장실에서 큰일을 마치고 외치는 소리가 아닌가. 대호는 "밥 주세요? 공기하고 싶다" 광호도 약속을 어기고 이른 아침부터 만화영화를 보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곳곳하게 잠자리를 지키고



2004. 12. 27 / 양보하면 좋은게 자꾸 없어져!

요즘 확실히 혜진이가 변해가고 있음을 느낀다. 최근 들어서는 유현이와 자주 충돌을 하곤 한다. 돌이키는 듯 하다가 싸우는 소리가 나고 그러다가 토라져서 제방으로 가기도 한다. 혜진이에게 요즘 언니하고 왜 자꾸 다투느냐고 묻자 혜진이 대답이 이젠 양보하기 싫단다. 양보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고 되물자 양보하면 좋은게 자꾸 없어진단다. 인형옷이랑 학용품이랑 좋은게 다 없어졌단다. 이젠 혜진이도 실속을 차리는 것 같다. 유현이는 예전처럼 마음대로 안되는 혜진이에게 강도를 높이게 되고, 혜진이는 혜진이대로 제것을 지키려고 대응하고... 남들은 초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야 그런 반응을 보이는 혜진이가 오히려 늦은 편이라고 하는데, 난 혜진이가 조금이라도 더 순진함을 오래 유지하기를 바랐었다. 어차피 살면서 조금씩 때문고 닳아갈텐데...

있는 친구가 있으니, 하하 우리의 새댁 현영이는 요동도 하지 않고 자기할 일(잠)을 하고 있다. 연휴 마지막 날의 아침은 또 이렇게 부산스럽게 시작을 한다.

2004. 10. 27 / 수두 주의보 발령

2년전 때 아닌 수두가 나눔을 휩쓸고 갔다. 지금도 당시에 찍어 두었던 아이들 사진을 보면 전율을 금치 못한다. 그 공포의 수두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으~악! 오복이가 며칠 전부터 수포성 발진이 생기고 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다. 진단 결과 수두! 나눔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이미 수두를 앓은 아이와 아직 앓지 않은 아이를 분리하고 오복이의 치료가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물론 학교에도 가지 못했다. 닷새가 지난 오늘 아직 다른 아이에게 전염은 되지 않았다.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힘든 때가 이런 전염성 질병이 발병했을 때이다. 큰 탈 없이 넘어가기를 기도한다. 오늘 오복이 담임선생님 전화가 왔다. "우리 오복이 없으니 수업이 안되네요. 빨리 치료되어 학교에 왔으면 좋겠어요" 오복이의 인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잠복기가 1주일이라고 하니 며칠은 더 긴장해야 될 것 같다. 수두야! 제발 아이들 건드리지 말고 조용히 지나가라~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다녀와서-



우리복지시민연합 실습생
김복희

지난 1월 2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실습의 일환으로 찾아간 대안가정운동본부는 아동들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는 곳이라 아기자기한 분위기였고 참 편안했다.

정민경 선생님께서 대안가정운동본부와 아동위탁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고, 설명을 들으면서 생긴 궁금한 점이나 미리 준비해갔던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에 국장님께서 해뜨는집과 다른 대안가정들의 작은 에피소드들도 들려주시고 이것저것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그리고 실제로 위탁아동을 돌보고 계시는 국장님의 산 증언을 들을 수 있어서 더 알찼던 시간이었다.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정위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혈연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더욱 확산되는 데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런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아야겠다는 생각도 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기 전에 사전에 미리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정책들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

요즘 가정의 해체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IMF 이후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이런 현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어쩌면 가정해체의 과정에서 가장 상처를 받는 가족구성원이 아동일 것이라 생각했었다. 그 아동들이 그나마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안정되게 자랄 수 있다는 사실이 안심이 되기도 했고, 정말 아동양육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바람직한 통로가 되는 것 같다. 현재 아동위탁과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지 않아서 사업을 하면서 힘든 일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국가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에 더 큰 관심을 가져서 법도 제정되고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마련했으면 한다.

햇살이 따스했던 1월20일 오후 대안가정운동본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지 홈페이지를 통해 대략적으로 알고 갔었지만 직접 방문을 한다니 조금 떨리는 감이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정민경 선생님께서 나와 친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다. 무척 작은 공간이었지만 햇볕이 잘 들고 양증맞은 곳이었다. 선생님께서 친절히 자료를 주시며 단체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셨다. 설명을 통해 이 단체가 가정위탁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대구·경북지역의 대안가정들을 연결해주고,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 기억에 남는 것은 정부에서의 어떤 보조금도 없이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정부의 제재를 덜 받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단체를 투명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소에 잘 알지 못했던 가정위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이 단체를 방문하면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에서 벗어나 가슴으로 일하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음에 담을 수 있다는 것이 좋았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앞장서서 하고 계시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무엇보다 스스로 자신의 상황을 개선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더욱 많이 확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나라의 미래인 아동들이 대안가정에서 사랑을 배우고 자신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나도 미래에 한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이분들처럼 대안가정을 꾸려 보고 싶다는 생각도 해보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실습생
진수란

■ 현황 및 소식

□ 상담내용별 현황

상담 내용 월	아동위탁상담				대안가정상담			지원상담			계	신규 신청 가정	신규 의회 아동
	아동위탁 의뢰상담	친부모 상담	대안가정 신청상담	양육 상담	행정	주치의	타기관 연계	아동- 친부모 만남	기타				
10월	25	5	14	10	4	2	7	-	2	69	5	8	
11월	26	1	22	8	2	-	10	-	1	70	4	6	
12월	24	8	21	17	7	-	10	1	1	89	6	3	
분기계	75	14	57	35	13	2	27	1	3	228	15	17	

□ 상담유형별 현황

월	전화상담	웹상담	내방상담	방문상담	기타상담	계
7월	60	5	1	3	-	69
8월	55	9	4	2	-	70
9월	75	8	5	1	-	89
분기계	190	22	9	6	-	228

■ 본부소식

• 이국진 자문위원 제28회 청백봉사상 수상
2004년 11월 18일 이국진 자문위원이 행정자치부와 중앙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제28회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국진 선생님은 지난 2002년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시부터 행정자문 역할을 해 오셨으며, 그 이전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며 앞으로 많은 활동 기대합니다. 이국진 선생님 청백봉사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2005년 정기이사회
1월 13일 대안가정운동본부 정기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 사업보고 및 재정보고,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정관개정 및 임원인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복지순례단 아동복지포럼팀 단체방문
1월 14일 사회복지정보원에서 실시하는 복지순례단의 아동복지포럼팀이 단체방문을 왔었습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사업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새식구 소개



장효점 상담원

반갑습니다. 오늘로 출근 이틀째를 맞은 정말 따끈따끈한 새내기 상담원 장효점입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초기부터 이런저런 자원활동을 해왔는데, 바로 어제!! 자원활동가에서 상담원으로 신분이 확~ 바뀌었습니다. 국장님과 정민정 선생님 사이에 책상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쪽 한번, 저쪽 한번 번갈아 보면서 배

워가고 있는데, 아직 정신도 없고 어리버리 하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대안가정운동본부 새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마냥 설레이고, 또 그만치 긴장되고 떨리기도 합니다.

사회인으로서 첫걸음을 대안가정과 함께하게 된 것이 제게는 참으로 축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동안 대안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켜오신 많은 분들께 잘 부탁드립니다 인사말씀 드릴게요. 처음 마음 잊지 않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일하겠습니다. 지켜봐주세요!

■ 아이들 소식

• 민교(12월, 여)
이혼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어 출산 후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고, 친척들의 도움으로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개월간 민교를 돌보아주던 가정에서 더 이상 양육이 어려워 부득이 가정위탁을 의뢰하였습니다. 민교 위로 6세 언니는 할머니가 돌보고 있지만, 민교는 너무 어려 같이 돌보기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아빠는 최근 실직하여 열심히 구직활동을 하고 있지만, 직장을 새로 구하더라도 민교를 직접 돌보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빠는 2년 정도 민교의 위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민교와 사랑을 나눌 대안가정을 찾습니다.

• 민지(5세, 여)가 대안가정을 찾았습니다.
1월 21일 민지가 대안가정으로 왔습니다. 오래전부터 대안가정이 되고자 준비해 오셨고, 7세 여아를 둔 가정입니다. 또 이전에 가정위탁의 경험이 있으신 가정이라 잘 양육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맺어진 민지와 인연으로 대안가정은 무척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민지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쑥쑥 자라라~

■ 4/4분기 회비 및 후원 내역
(2004년 10월~12월)

이사회비		이원삼	
김규원	90,000	김하수	30,000
송광익	150,000	김현희	30,000
우극현	90,000	김호근	15,000
은재식	90,000	김회동	20,000
이수형	600,000	나봉희	60,000
이왕욱	90,000	동진산업	60,000
이태원	150,000	문우경	30,000
정영숙	90,000	민순기	30,000
		박기호	60,000
		박대산	30,000
		박문욱	20,000
		박미경	30,000
		박성천	30,000
		박신연	30,000
		박연금	30,000
		박옥란	30,000
		박천훈	30,000
		박형룡	20,000
		박혜숙	30,000
		박인주	30,000
		배성훈	30,000
		배창환	10,000
		배태순	60,000
		백기웅	30,000
		백석환	30,000
		빈은선	40,000
		서숙	30,000
		서진천	150,000
		손성라	30,000
		송계무	30,000
		신은정	20,000
		심전완	30,000
		심형순	15,000
		안이정선	30,000
		안춘옥	15,000
		양덕근, 김혜경	60,000
		양정희	30,000
		오길수	30,000
		오은환	40,000
		오직렬	10,000
		오찬현	30,000
		우연조	30,000
		우연경	30,000
		원순옥	100,000
		유순정	5,000
		유은주	40,000
		유호상	30,000
		은창숙	30,000
		이건호	30,000
		이문기	20,000
		이미선	30,000
		이미숙	30,000
		이병호	15,000
		이상유	10,000
		이상훈	20,000
		이성희	30,000
		이순임	30,000
		이신자	30,000
		이영석	5,000
		이영찬	15,000
		이영화	90,000
		이영희	30,000
		이옥화	30,000
		이원삼	30,000
		이유미	15,000
		이윤근	300,000
		이윤재	30,000
		이일영	30,000
		이재성	60,000
		이재은	10,000
		이지은	30,000
		이채규	100,000
		이창훈	20,000
		이춘희	30,000
		이현숙	30,000
		이혜영	30,000
		이혜진	15,000
		이호용	60,000
		이효순	30,000
		임아정	15,000
		임영진	15,000
		임익성	5,000
		임진규	15,000
		장경은	30,000
		장경철	30,000
		장병화	30,000
		장호덕	30,000
		전혜영	40,000
		정경란	60,000
		정미옥	60,000
		정만경	5,000
		정용성	30,000
		정은주	20,000
		정희우	15,000
		조윤주	90,000
		조현정	15,000
		채승욱	30,000
		최경호	30,000
		최봉진	15,000
		최상근	20,000
		TCN대구방송	150,000
		하정옥	80,000
		한국케이블TV	150,000
		한미경	60,000
		한은희	30,000
		허유희	30,000
		홍동표	30,000
		황영재	10,000
		(무명)	50,000
		일반후원	
		삼성탈레스기구설계	
		그룹	531,000
		허정미	40,000
		특별후원	
		이국진	500,000
		이승찬	50,000
		희망의러브하우스	300,000
		물품후원	
		배순균	
		편방한상자	

■ 4/4분기 재정보고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8,650,000	사무비			9,701,570
회비			8,650,000	인건비			6,300,880
이사회비			2,350,000	급여			5,550,000
정회원회비			485,000	제수당			400,000
후원회원회비			5,815,000	보험부담금			350,880
후원금			1,421,000	업무추진비			314,870
후원금			1,421,000	기관운영비			180,000
일반후원금			571,000	회의비			134,870
특별후원금			850,000	운영비			3,085,820
잡수입			6,357	여비			180,550
잡수입			6,357	수용비			100,230
예금이자			6,357	공공요금			98,430
				제세공과금			2,000,000
				차량비			174,650
				연료비			58,000
				잡비			88,850
				사업비			2,181,370
				일반사업비			2,181,370
				상당사업			63,500
				교육사업비			195,250
				대안가정지원			669,070
				출판홍보사업			1,253,550
총계			10,077,357	총계			11,882,940
1/4분기 이월금			5,487,800	잔액			3,682,217
합계			15,565,157	합계			15,565,157

◆ 회비 및 후원 관련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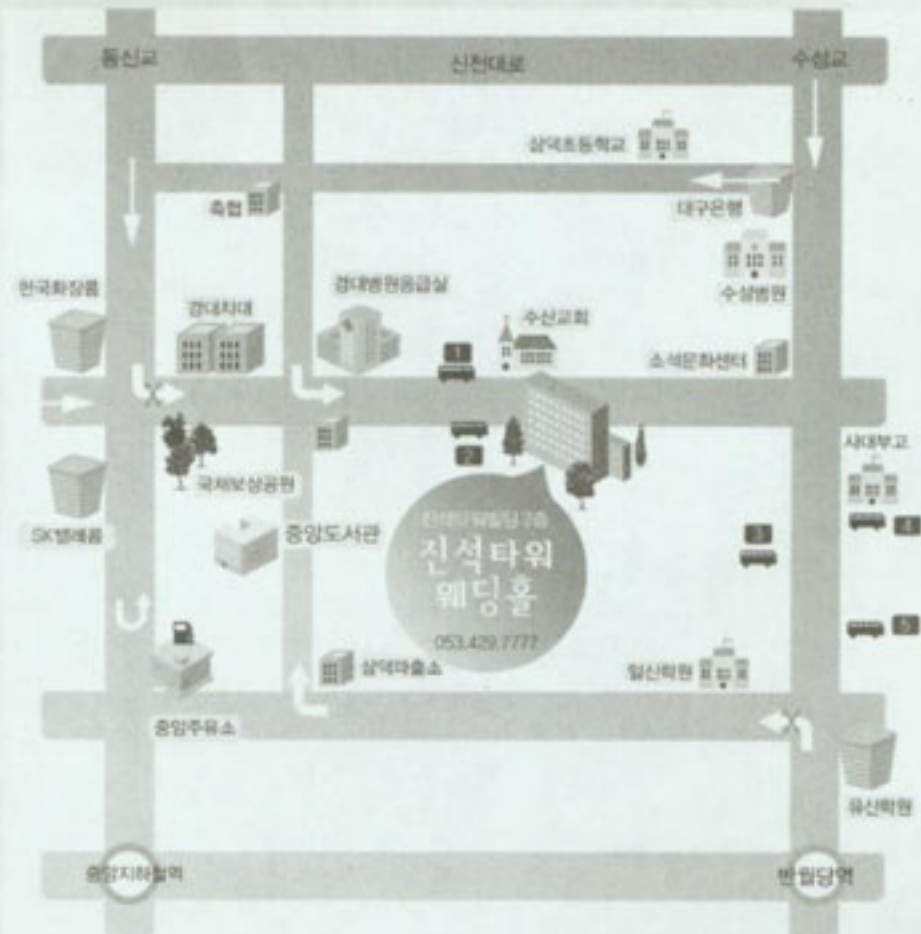
- 대안가정운동본부에 후원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지로로 회비 및 후원금을 납부하시는 경우, 금융결제원에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실제 입금 날짜와 차이가 있습니다. (약 5일 소요)
- 회비 및 후원금은 가능한 자동이체로 납부하시면 좋습니다. 대구은행 계좌가 있으신 경우, 계좌를 알려주시면 사무국에서 자동이체 신청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2005년 정기총회>

대안가정운동본부 2005년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정 회원들은 꼭 참석하셔서 대안가정운동본부의 건강한 운영을 위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식사를 먼저 한 후 총회를 시작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일찍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안가정 가족들의 합창공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가능한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일정 : 2005년 2월 17일(금) 오후 7시
- 장소 : 진석타워웨딩홀 (경북대병원 응급실 맞은편/주차가능)
- 참가자 : 정회원, 후원회원 및 대안가정 가족
- 문의 : 053-628-2592(대안가정운동본부)
053-429-7777(진석타워웨딩홀)
- 버스노선 : **일반** 103, 204, 305, 403, 425, 535, 601, 609, 613, 636, 724, 840, 890, 906
좌석 509, 649, 936

♠ 진석타워웨딩홀 약도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대구은행 : 068-05-0056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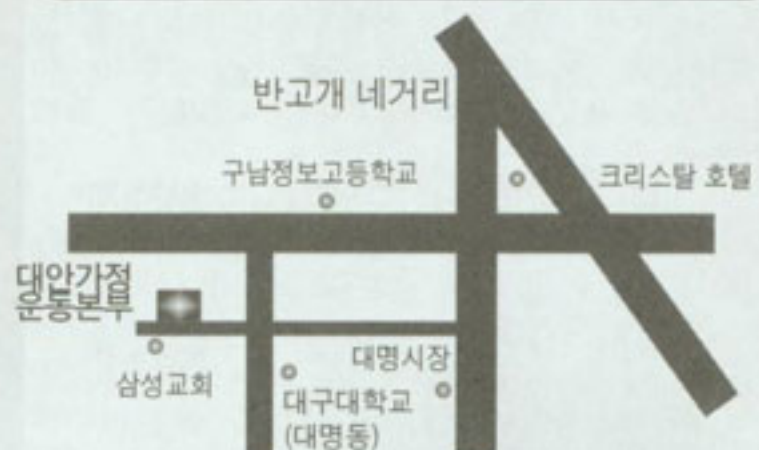
농협 : 718-01-176941

국민은행 : 602-01-0688-119

조흥은행 : 801-01-276520

(대구은행의 경우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사무실에서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하며, 타은행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약도



버스노선 : 일반 434, 603, 616, 623, 650, 750, 808, 836, 906
좌석 306, 600, 608